

덕승문과 조양문, 길림시 관광지리표지로



길림시 덕승문



길림시 조양문

원 길림시 덕승문은 1673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길림시 서벽의 북쪽에 위치하여있으며 오늘의 월산로와 덕승로가 만나는 곳이다. 덕승문의 건립은 청나라 길림성의 증축과 군사방어와 관련되며 '승리개선'을 의미한다.

이 성문은 통로일 뿐만 아니라 승리와 개선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는바 당시 장병들의 출정과 개선의 중요한 관문이 되었다.

원 길림시 조양문은 1671년에 건설되었는데 속칭 '대동문'이라고 하며 길림시 최초의 성문의 하나로서 길림시 정동벽에 위치해있으며 매일 새벽 가

장 일찍 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조양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지난 10월 1일에 원형을 되살려 건설하기 시작한 이 두곳의 성문이 완공되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다.

11월 2일, 덕승문과 조양문에서 동시에 길림시가무단 배우들이 공연한 정경쇼가 펼쳐졌다.

징의 굉음과 함께 성문이 천천히 열린다. 청나라 말기 백성 복장 차림을 한 장사꾼들이 차례로 성문 안에서 걸어나오면서 싸구려를 웨친다. 길림시가무단의 배우들이 옛 거리의 변화함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는 장면이다.

덕승문의 '군림대동' 정경쇼도 마찬가지로 다채롭다. 우뚝 솟은 성문 윗쪽에서는 마치 오래되고 먼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강희대제의 전설적인 일생을 소개한다.

성문관의 선포에 따라 성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청나라 장병 복식을 입은 배우들이 손에 기발을 들고 질서있게 걸어나오고 그 뒤를 만족 궁정 복식을 입은 네배우들이 이었다. 그들은 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춤을 추며 국민안을 기도했다. 춤이 끝나자 레질관이 연설을 하고 강희황제와 문무백관을 맞이하여 길림시 중심상업거리 하남가 대동복지를 순시했다.

이날 길림시가무단은 청나라 황제가 대동을 순회하는 역사적 장면을 예술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길림시가무단의 정경 공연은 길림시의 두터운 역사 문화 바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여 강성 길림시의 력사의 온도와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차영국기자

사시 재배로 치부와 생태의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최근, 영길현 쌍하진 계룡사시재 배농민전문합작사의 14헥타르 사시(沙棘)기지가 풍작을 맞이했다. 협동조합 리사장 문명은 "사시는 식품, 보건품 가공 업체들이 왔다 투어 사들이는 월료"라며 "싱싱한 과일만 팔아도 무당 순수임이 만원을 넘긴다."고 말했다.

현재 협동조합은 영길현에서만 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량호한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 사시나무 열매에는 여러가지 사시나무 량호한 방호림 나무 품종으로 수도 유지, 수원 함양(涵養), 토양개량에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쌍하진 흑석촌 촌민들은 사시가 약용 가치와 식용 가치가 높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방면의 고찰을 거쳐 계룡사시재배농민 전문합작사를 설립했다.

쌍하진은 정부 + 합작사 + 농가 사시나무는 생장기가 3년에서 5년이며 초기 보수 시간이 길다. 쌍하진에서는 자료열람, 현지 고찰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사시 재배 농가에 대한 재배 보수 지도 강도를 높이고 모목의 활착률을 높여 재배 농가가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토양 조건이 좋지 않아 합작사가 설립된 첫 3년, 사원들의 임무는 바로 나무를 심고 김매기를 하며 끊임없이 묘목을 보충하고 토양환경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사시나무는 이미 당지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생태나무'로 되었다.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합작사는 점차 정밀가공,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이전하여 정밀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사시 계열 제품을 개발하였다.

문명 리사장은 "사시나무 열매는 사시원액, 사시오일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바 최근에는 사시골, 사시산약옥수수주, 사시차 등이 새로 추가돼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쌍하진은 정부 + 합작사 + 농가 산업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충분히 리용하여 정부에서 부족 인도하고 관련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형 시범을 틀어쥐어 사시산업의 표준화 재배, 규모화 경영을 촉진하였다.

/ 송화강넷

교하, 15만여무 농경지에 보호성 경작기술 실시

랑국 안전을 한층 더 보장하고 후토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 교하시는 후토지 보호성 경작 모식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경작지의 질과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여 랑국 풍작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조력했다.

지금까지 교하시에서는 도합 15만여무의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였다.

일전, 교하시 신농가두 농기계과학 기술시범기지에서 교하시농기계소의

농업기술 전문가들이 기지에서 보호성 경작기술을 통해 재배한 옥수수의 생산량을 측정했다.

전문가들은 임의로 5개의 샘플을 선정, 각기 20평방미터를 확정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탈곡하여 무게를 측정 후 각 항목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통계분석하여 생산량 상황을 전통적인 재배 모델보다 5% 증산할 것으로 정확하게 예측했다.

올봄부터 교하시농기계소의 기술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여러 향진에 침입하여 보호성 경작기술 훈련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전단계 파종의 질과 후기 옥수수의 성장세를 살펴보고 기술난제를 해결하였다.

신농가두 하와자촌의 랑국대재배호리진파는 바로 보호성 경작기술의 수익자로서 올해 300여무의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농기계소 기술전문가의 지도하에 전부 경작면제기술을 채용

했다.

교하시농기계소는 계속하여 여러 향진에 침입하여 백성들이 관심하는 재배기술, 농기계작업 원리, 풍작 증수 효과 등에 비추어 과학보급 선전과 정책 강연을 전개하여 보호성 경작 관념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게 함으로써 후토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게 된다.

/ 송화강넷

길림화미전자 3분기 영업수입 5억원 실현

최근, 길림화미전자주식유한회사 지능모듈(模块) 생산작업장에서 작업일이 한창 패치(贴片)설비를 조작하여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3분기 영업수입은 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05% 늘어났다. 전 3분기 영업수입은 루계로 15억 7,900만원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24.86% 증가했다.

/ 강성일보

모교의 추억—그때 그 시절 영길조 1중

30년전, 내가 다니던 길림시 영길조 1중은 동쪽으로는 푸르청청한 나무들이 뒤덮인 산이 버티고 서있고 그 밑으로는 이름 모를 하천이 제방뚝 안에서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다. 그 하천을 따라 백양나무가 지질 줄 모르는 병사들마냥 씩씩하게 줄지어 서있었고 하천 옆으로 우리 학교 건물이 다 소꿉이 포개고 앉아 학생들을 반기고 있었다.

스승들은 정성껏 가르치고 제자들은 고심히 배우는 풍토가 봄날에 가득 피는 진달래향처럼 진하게 감도는 교정 안에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이팔청춘의 남아들이 있었으니 다소 따분한 교정이 활력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 학교에는 초중과 고중을 합쳐 천여명의 기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봐도 규모가 작지는 않았다. 기숙생들은 매년 로동절과 국경일이면 시골집으로 내려가 계절 옷가지들을 챙기고 엄마가 싸주는 떡이며 고추볶음 같은 먹거리를, 그리고 소량의 현금을 가지고 학교로 복귀했다.

이럴 때면 학교를 일찍 그만둔 퇴학생들이나 사회불량배들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녀학생들을 놀래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손해를 본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농촌에서 현성으로 올라온 외지 학생들이 대부분인지라 무섭고 분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오늘은 재수 없게 불량배들을 만나지 말자 하는 요행심리로 조심조심 학교 밖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오래동안 해

결되지 않아 학생들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었다.

손해를 보고 주눅이 든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다. 일약 지역 안전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분노는 야근야금 커지고 반항의 불씨는 그들의 가슴에 소리없이 지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녁밥 먹을 시간이었던 것 같다. 4층 복도에서 내려다보니 넓은 운동장에 학생들의 발걸음이 다급해지고 모두가 대문 쪽으로 소용돌이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손에는 딱지는 대로 돌맹이나 벽돌장, 몽둥이 등을 들고 와 ~ 하는 소리와 함께 한곳을 향해 던지고 때리고 차고... 있었다.

이런바 사회불량배들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다. 싸움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마침 지나가던 교원들이 계셔서 어떻게 제지가 됐는지 서로 많은 상처를 내고 각자 병원으로 빠르게 호송되었다.

싸움의 원인은 사회불량배들이 학교 대문 앞에서 한 학생의 돈을 빼앗았고 또 지나가는 녀학생들을 겁탈하려 하자 손해를 본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그렇게 따라 들어온 사회불량배들이 의리 있는 학생들과 예상치 않게 맞닥뜨렸고 분개한 나머지 큰소리로 제지를 하자 시큰둥하니 칼을 꺼내들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여러 학생들이 빠르게 지원했다. 그중에 서도 의리파 친구들이 주도가 되어

사회불량배들을 호되게 부수었다. 불량배들은 평소 고분고분하던 학생들이 분노한 얼굴로 구름떼처럼 몰려오니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쳤다. 칼을 지참하고 학교에 쳐들어온 죄가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쪽에서 피를 줄줄 흘릴 정도로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누구도 감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주요 참여 학생들에게 너무 큰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손해를 본 학생들을 지켜주기 위해 정의롭게 싸웠다는 명분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현명한 선생님들이 참으로 고마운 대목이다.

그후 서너번 간죽거리는 사회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럿이 힘을 합쳐 끝까지 쫓아가서 대치를 했더니 점차 겁탈하거나 돈을 빼앗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한 사람은 건드리기 쉬워도 탄탄하게 뭉친 학생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 덕분에 고중을 다니는 내내 많은 학생들은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학교에 찾아와서 책임을 물으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마무리가 되었다.

'격정시대'의 작가이며 우리 문단의 로신이라 불리는 김학철선생은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고 하였다.

/ 김영보

길림석유화학염료공장 거대 저장탱크 운반 성공



시공 현장에서 부틸렌 저장탱크를 들어올리고 있다.

최근, 길림석유화학염료공장 V0901C 부틸렌(丁烯) 저장탱크 크레인 해체 운송 작업이 원만히 완료되었다.

장지공에 개진된 수요로 길림석유화학은 이 저장탱크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길림석유화학건설회사에서 이번 크레인 해체를 책임졌는데 총 길이가 18미터, 직경이 3미터가 넘으며

중량이 34톤에 달하는 저장탱크를 안전하게 분해하고 지정된 지점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기술자들은 시공 방안을 제정하고 선후로 3차례의 시공 탁상 토론을 진행하여 현장 주변의 크레인을 가로막는 관망, 도관, 밸브를 앞당겨 해체 정렬함으로써 최단시간내에 이번 크레인 해체 임무를 안전하게 완수하였다.

/ 송화강넷